



**우주로 향하는 누리호** 손수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훌륭한 성과... 미완의 과제도”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와 관련해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히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첫 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사가 이뤄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발사를 참관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

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발사 관제부터 이륙, 공중에서 벌어지는 두 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 위성 분리까지 자질없이 이루어졌다”며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해 보완하면 내년 5월에 있을 두 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도민 87% “국제자유도시 비전 수정해야”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도민 인식 조사 결과 발표**  
**도민 절반 이상 “집중된 도지사 권한 분산 필요해”**  
**‘시장직선제 도입’ ‘행정구역 개편 필요’ 의견 높아**

제주도민 10명 중 9명 꼴로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해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민 절반 이상은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미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도민 인식도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는 제주미래연구원이 지난 6~7월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정2를 준비하다’를 주제로 한라일보와 제주의소리가 공동으로 개최한 집중토론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해 도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

해 기획됐다. 조사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로운 이동과 기업활동에 대한 편리한 규제 완화, 국제적 기준 적용으로 설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은 결과 응답자의 87.1%가 ‘수정해야 한다’고 답했고 ‘현행 유지’를 바라는 의견은 12.9%에 그쳤다.  
 이런 결과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안됐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19.2%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30.6%보다 11.4%포인트 낮았다.  
 제주의 새로운 가치, 또는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1순위 응답은 삶의 질 33.9%와 환경 가치 33.7%순으로 높았고, 2순위 응답은 환경가치 23.7%와 삶의 질 14.7% 순이었다.  
 또 제주도지사 권한에 대한 분산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동의한다’는 의견이 60.2%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 11.8%에 비해 5배 이상 높았고, 도지사 권한 분산 대안으로 거론되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응답이 44.4%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 15.1%에 견줘 3배 가량 높았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 부활 필요성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36%가 동의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 23.4%보다 많았으며, 행정 구역 인식 조사에선 개편 의견이 52.3%로 현행 유지 의견 47.8%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구역 개편 방식에 대해서는 ▷2개 시·2개군 형태의 과거 행정구역 복귀 의견이 19.2%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고 서귀포시 구역을 유지하는 의견이 18.5% ▷제주시를 동·서로, 현행 서귀포시를 남·북으로 나누는 각각 의견이 11.7%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 도의회 등의 절차를 남겨둔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해 응답자의 69%가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해선 응답자의 52.3%가 제주도 기관 또는 별도의 특별 행정청에서 관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미완의 성공’

**어제 오후 5시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서 발사**  
**700km 고도까지 비행성공... 위성 궤도안착은 실패**  
**정통부 “전 비행 정상... 3단엔진 연소시간 짧았다”**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목표 고도인 700km에는 도달했으나, 탑재체인 ‘더미 위성’(모사체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데는 실패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누리호 발사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5시 발사된 누리호의 전 비행 과정이 정상적으로 수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위성 모사체가 700km 고도 목표에는 도달했으나 모사체가 초당 7.5km의 목표 속도에는 미치지 못해 지구 저궤도에 안착하

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누리호 1단부는 75t급 엔진 4기가 클러스터링(묶음) 돼 300t급의 추력을 내는 게 핵심 기술”이라며 “오늘 발사를 통해 1단부 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임 장관은 “또한 1단, 페어링(발사체 내 탑재물을 보호하는 덮개), 2단이 분리하고 3단이 성공적으로 점화된 것은 소기의 성과”라며 “이는 국내의 발사체 기술력이 상당 수준으로 축적됐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누리호 탑재체인 더미 위성(위성

모사체)이 궤도에 안착하지 못한 것은 3단에 달린 7t급 액체엔진의 작동이 목표대로 521초 동안 연소되지 못하고 475초만에 조기 종료돼, 마지막 순간에 충분한 속력을 얻지 못한 탓이다.  
 브리핑에 배석한 고정환 항우연 발사체개발본부장은 “3단 비행을 지켜봤을 때 연소 시간이 40~50초 정도 일찍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며 “저희가 계속된 데이터를 다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누리호는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전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누리호는 이륙 1단 분리, 탑재체를 보호하는 덮개(페어링) 분리, 2단 분리, 3단엔진 점화와 정지를 거쳐 700

km 고도에서 더미 위성을 분리하는 데까지는 비행이 진행됐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급 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km)에 보내기 위해 제작된 발사체다.  
 이날 진행된 1차 발사에서 누리호는 실용 위성 대신 1.5t짜리 더미 위성을 싣고 발사를 시도했다.  
 과기정통부는 발사를 주관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발사조사 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3단 엔진 조기 종료의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2차 발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누리호 2차 발사는 내년 5월 19일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임 장관은 “정부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며 “우주 강국의 꿈을 이루려는 날까지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토. 일요일 신문 쉽니다**

<b>제주 코로나19</b>	<b>신규 6</b>
21일 <17시 기준>	<b>누적 3047</b>

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